

보도분류	브리핑() 보도자료 제공(✓)
보도일시	2023. 3. 29(수)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작성과	도시건축과
담당	과장 임제락, 산업기반지원팀장 송용석, 담당 유병철(032-453-7932)

사물인터넷 · 인공지능으로 지하시설물 관리한다

인천경제청, 국비 17.5억원 확보...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과 업무협약 체결
‘디지털 지하공동구 관리시스템 구축’ 통해 안전 · 신속 공동구 관리 가능해져
“공동구 업그레이드 위한 선제적 대응 결실” ...내달 착공해 올해말 준공 예정

-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지하 공동구를 디지털로 구축해 관리하는 공모에 선정돼 국비 17억5천만원을 받게 되면서 더욱 안전하고 신속한 공동구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.
- 인천경제청은 29일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김진용 청장을 비롯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, 김종필 인천시설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‘IoT-AI 기반 시설물 스마트관리 사업’ 협약을 가졌다고 밝혔다.
- 이 시스템은 영상, 진동, 화재, 온도, 습도, 가스측정 등 사물인터넷(IoT) 복합센서, 지능형 CCTV, 인공지능(AI) 등을 활용한 지능정보 기술 기반의 디지털 관제를 말한다.
- 협약은 지난해 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(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)가 공모한 이 사업에 인천경제청이 최근 선정된데 따른 후속 조치이며 참여 기관이 손을 맞잡고 내달부터 본격 추진되는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마련됐다.

- 이 시스템 구축은 송도 5·7공구 전체에 △기존 40만 화소인 지능형 CCTV 71대를 200만 화소로, 또 관제 모니터를 각각 교체하고 △사물인터넷(IoT)으로 영상, 진동, 화재, 온도, 습도, 가스측정 등을 할 수 있는 복합 센서 100대를 설치하는 한편 △광통신 선로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다. 또 송도 1·3공구 일부에도 IoT 복합센서와 관리 시스템을 신규로 설치한다.
-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지난 2009년 10월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송도 1공구 등의 지하 공동구에 최신 지능정보 기술 기반 디지털 관제시스템이 구축돼 위험 예측, 조기 대응, 다양한 응용 서비스가 가능해져 공동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전망이다.
- 특히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지난 2018년 11월 발생한 KT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사고와 같은 도시기능 마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인천경제청의 안전한 도시기반 시설 관리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.
- 총 사업비 22억원 가운데 국비는 17억5천만원이며 나머지 4억5천만원은 인천경제청이 투입한다. 내달 사업 발주 및 착공, 올해 말에 사업을 준공할 계획이다.
- 송도에 설치된 지하 공동구는 송도 1·3공구를 시작으로 5·7 공구 및 6·8공구에 총 연장 39.38km다. 전기, 상수도, 통신, 열배관 등 10여개의 도시기반 시설이 설치돼 있는 지하 공간으로 국가 핵심 기반 시설이다.
- 김진용 청장은 “이번 공모 사업 선정은 설치된지 오래된 지하 공동구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노력해 거둔 결실”이라며 “앞으로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해 전력, 상수도, 통신 등 기반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

IFEZ 지하공동구 개요

- (시설규모) 관리연장 39.38Km
 - 1·3공구(19.63Km), 5·7공구(10.64Km), 6·8공구(9.11Km)
- (수용시설) 상수도, 중수도, 전력, 지역난방, 통신, 쓰레기 송수관 등

붙임

디지털 지하공동구 관리시스템 구축 구성도

